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8, Gadamer & Bultmann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마지막 세션에서 우리는 프랜시스 베이컨부터 쉘라이어마허에 이르기까지 계몽주의 시대의 여러 개인, 그리고 해석학에 대한 기여와 사고에 대한 기여를 살펴봄으로써 해석학과 해석에 대한 몇 가지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해석학에 대한 우리 생각의 많은 부분이 성경 해석가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는 이해하고 아는 것에 대한 사고 방법에 의해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개인 중 일부의 유산과 심지어 현대 해석학, 심지어 성경 연구에 대한 그들의 공헌도 고려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0세기로 건너가서 20세기와 심지어 21세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석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준 소수의 개인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아마도 해석학의 일부 해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다른 누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Hans- Gurg Gadamer 라는 이름의 독일 철학자였으며, 1900년부터 2002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상가들의 연대와 그들 대부분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들으면서 흥미롭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훈은 해석학적 사상가나 철학자가 되고 장수를

보장받는 것 입니다 .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80대, 심지어 90대까지 살았는지, 한스- 구르크 가다머 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래 살았는지가 흥미롭습니다 .

그러나 이 독일 철학자 가다머는 종종 새로운 해석학으로 분류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다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진실과 방법(Truth and Method)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다머는 철학적 해석학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때때로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용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Gadamer의 저작인 '진리와 방법'과 해석학에 대한 이해의 발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다머 역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과학적 방법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의 추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이해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진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대신, Gadamer는 이해를 단순히 과학적 기술과 과학적 방법의 결과로 보거나, 해석학을 성경 본문에 대한 우리의 목적을 위해 대상을 지배하는 해석 주제의 관점에서 보려는 이전 시도에 반응 했습니다 . 대상을 지배하여 주체가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 분석하는 주체.

그리고 그것이 바로 Gadamer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해석학인 가다머에게 있어서 우리는 해석학이 단지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우리 성경 본문 아래에 있고 그에게는 삶을 이해하는 것임을 알기 시작했다는 점을 덧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에게 해석학은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것은 학제간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상가 중 상당수가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우리는 텍스트를 지배하지 않지만 Gadamer에 따르면 텍스트는 또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Gadamer는 그가 한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 얽혀 있고 얽매어 있어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관심사, 신념,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편견, 성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해를 채색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존 로크(John Locke)는 우리가 외부 세계의 감각적 인상에 의해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백지 상태로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adamer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주변 환경에 너무 얽매어 있고 우리 자신의 이해, 성향, 편견에 너무 얽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멍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의 범주를 떠나서, 이전의 이해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파악하거나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따라서 Gadamer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의 이익, 신념, 삶의 상황에 얽매어 있다는 사전 이해와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나 해석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관찰자로서 사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관찰하고 숙달하고 순전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립되고 초연한 관찰자, 주체가 아닙니다. 대신, 이것에 대한 나의 이해는 나 자신의 이익, 나의 신념, 나의 경향과 전제, 나의 편견에 의해 물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는 Gadamer에게는 좋은 일이지 반드시 부정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립적이고 초연한 관찰자로서 무언가를 이해하는 대신, 가다머의 이해 과정은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학에 대한 그의 해결책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편견과 전제, 우리의 관심과 믿음을 갖고 있는 텍스트에 도달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의 해결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실제로 텍스트 자체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려는 대상에 우리의 모든 짐, 모든 배경, 전제를 가져오면서 그 대상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석 과정은 객관적인 관찰자가 앉아서 데이터를 흡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그렇다면 Gadamer는 해석학을 일종의 대화 또는 이해하려는 것과의 대화로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지평의 융합에 대한 아이디어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입니다. 통역사가 텍스트에 접근하거나 이해해야 할 것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통역사가 자신의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 전제, 신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그들이 본문에서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텍스트와 일종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텍스트와 일종의 주고받기입니다. 따라서 텍스트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대가 확인될 수도 있고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좌절될 수도 있다. 차례로 텍스트와 다시 Gadamer는 그것을 일종의 앞뒤 대화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이해와 배경, 가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그러한 가정이 텍스트에서 확인되거나 좌절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차례로 텍스트 자체가 해석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가정을 수정하고 텍스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질문과 가정을 가져오고, 본문 자체가 그러한 질문에 도전하거나 확인하고, 내가 이해하는 내용, 즉 본문에 대해 묻는 종류의 질문을 수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Gadamer의 목표는 그가 지평선의 융합이라고 부르는 것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지평과 해석자의 지평은 일종의 상호 동의, 상호 이해,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공통 이해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짐에 따라 나 자신의 상황과 역사적 관점에서 본문의 지평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는 텍스트의 세계와 관점에서 나의 지평과 이해를 넓혀준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Gadamer의 경우 이것이 이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든 텍스트의 올바른 최종 해석이거나 텍스트에서 나온 특정 단일 올바른 의미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결과 두 사람의 지평이 넓어지고 일종의 상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adamer는 지평선이 올바른 의미, 즉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합쳐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다머의 경우, 그는 일종의 대화 해석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석자가 텍스트와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Gadamer의 기여를 살펴보는 한 가지 방법은 해석학에 대한 기여와 그의 접근 방식이 제기하는 몇 가지 질문을 모두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여에 관한 한, 다시 한 번 가다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나 해석자라는 것은 없으며 어떻게든 우리가 성경 본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통렬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신학적 신념, 우리의 문화, 우리의 관점 등.

누구도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필연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고 때로는 방해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흡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관찰하는 순수 귀납적 텍스트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본문에 가져온 내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전 지식도 없고, 사전 경험도 없고, 그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 범주도 없다면 어떻게 텍스트와 같은 것을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Gadamer의 공헌 중 하나는 단지 데이터를 흡수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기다리는 신화적이고 중립적이며

완전히 중립적이고 편견이 없는 관찰자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더욱 멀리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 Gadamer는 해석이 어떤 측면에서는 대화라는 점을 유용하게 강조했습니다.

해석은 우리에게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지평과 이해가 도전받고 변화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 의미는 종종 놀랍습니다. 의미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이해와 우리가 텍스트에 가져오는 사전 이해에 도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Gadamer는 텍스트가 우선권을 갖고 해석자가 텍스트의 올바른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해석의 대화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사물에 대한 지배력을 얻는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질문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본문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또한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으며 그것을 도전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의미는 놀랍고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될 것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 번째 기여는 해석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통찰력을 열어주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예레미야 31장을 펴서 읽고 올바른 의미에 도달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Gadamer는 해석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종종 지속되며 텍스트로 인해 우리의 이해가 도전을 받을 때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계속 열어준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Gadamer의 해석학적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꼭 대답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Gadamer의 생각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까? 텍스트와 대화를 시작할 때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나요? 지평선의 융합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지평선이 융합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나요? 다른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나요? 둘째, 대화가 악순환인가? 내 말은, 대화는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선이해와 편견, 가정이 있는 텍스트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텍스트가 다시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본문이 나에게 도전이 될 때, 내가 이미 내 배경과 편견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다머의 공헌을 고려하면,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예수의 비유 중 하나를 읽기로 선택하거나 바울의 편지 중 하나를 읽기로 선택한다면 그 본문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신의 성경 본문은 개인주의에 대한 내 자신의 선입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 본문에 접근할 수도 있고 매우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특히 21세기에는 21세기 중산층 미국인으로서 개인주의적인 가정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텍스트는 내 자신의 선입견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독자로서 나를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이 그것을 뒤집고 그것에 도전하도록 허용하고 나의 지평이나 관점과 이해를 성경 본문의 그것과 일치시키기를 바랍니다. 가다머의 접근 방식을 정확히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내 해석의 한 예이지만, 나는 가장 오랫동안 에베소서 5장과 18절과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순전히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경건주의적인 관점에서 읽었습니다..

저자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글을 순전히 개인주의적인 용어로 읽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고 따라서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내며, 바울이 성령에 의해 통제되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종류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개인으로서 나를 채우고 그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생산할 것이라는 개인적이고 경건하며 개인주의적인 용어로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에베소서 5장의 더 넓은 맥락에서 다시 읽으면서 나의 관점이 너무 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베소서 5장 18절의 관점이 더 단체적이고 공동체적인 관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전체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반드시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충만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면에 바울의 강조점은 훨씬 더 공동체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 기업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으로 보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채우실 성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성경 본문은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성경 본문에서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학에 영향력이 있는 또 다른 개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신약성서에 대한 그의 더 넓은 신학적, 성경적 이해에 있어서 더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다음 사람은 또 다른 독일 학자이자 독일 신약 학자인 루돌프 볼트만입니다. 특히 1884년부터 1976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루돌프 볼트만은 종종 실존적 해석학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이 있는 독일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볼트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트만은 해석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기여했습니다. 볼트만은 저자의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인 공관복음 전통의 역사(The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의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공관복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역사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복음의 발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전통.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은 아마도 20세기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신약성서 해석자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학생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글과 사고를 통해서도 여전히 널리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신약성서 신학을 집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신약성서 신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해석학에 글을 쓰고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에는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루돌프 볼트만은 선이해를 강조하고 있는가? Gadamer의 작업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Bultmann은 성경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사전 이해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는 없지만, 대신 우리가 텍스트에 접근할 때 우리의 사전 이해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론적 주석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당신의 회중에게 그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전제론적 주석이 가능한가? 물론 그 질문에 볼트만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볼트만의 해석학이 강조하는 두 번째 점은 해석학이 순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해석의 과정은 순환적이다. 우리는 Gadamer에게서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 이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전 이해부터 시작하여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 거부 또는 수정됩니다.

따라서 볼트만은 어떤 면에서는 가다머와 유사한 해석학을 어떤 면에서는 해석자와 텍스트 사이의 대화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사전 이해를 갖고 본문에 다가가서 본문이 그것을 수정하거나 도전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대화는 계속됩니다. 루돌프 볼트만의 해석학의 세 번째 특징은 실존론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은 종종 실존적 해석학으로 간주되고 동일시됩니다. 볼트만에 따르면 해석학의 목표는 텍스트와의 실존적 만남인데, 여기서 볼트만은 흔히 실존주의 사상가 마르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텍스트와의 실존적 만남을 해석의 주요 목표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읽을 것이고 목표는 진정한 인간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이 텍스트가 말하는 것에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본문을 읽는 목적은 결단과 진정한 존재에 대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볼트만의 해석학은 실존주의적이라고 특징지어질 수 있다. 목표는 텍스트와의 만남과 결정 및 진정한 인간 존재에 대한 요청을 갖는 것입니다.

볼트만의 해석학에 대해 언급할 네 번째 특징이자 마지막 특징은 비신화화 과정이다. 즉, 볼트만은 신약성서 본문을 비신화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에게 있어 성경, 특히 신약은 악마와 천사, 기적적인 치유와 부활 같은 것들이 있었던 시대에 뒤떨어지고 과학 이전의 세계관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거나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에게 거의 볼트만은 신앙과 종교, 신 사이의 구별을 통해 작업하고 있으며 영역 내에서

역사를 보고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는 원인과 결과 및 과학의 영역 내에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과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과학 이전의 시대에 뒤떨어진 세계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 세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볼트만에 따르면 우리는 신약성경을 실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기적과 부활, 천사와 악마 같은 것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세계관과 관련된 모든 신화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신화를 벗겨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의 핵심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비교했는데, 볼트만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히 진정한 존재에 대한 실존적 부르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참여하거나 경험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우리는 신화적인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부활 이야기를 읽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단순히 기독교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석학과 해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영향력 중 일부를 간단히 샘플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해석에 대한 역사적 뿌리와 역사적 영향에 대한 우리의 조사를 이 시점까지 요약하려면 다시 프란시스 베이컨과 그의 순전히 과학적인 귀납적 추론으로 돌아가서 데카르트와 인간, 자율적 사상가, 인간 추론 및 합리성에 대한 강조를 살펴봅니다. 알 수 있을 만큼. 존 로크가 강조한 마음은 외부 세계로부터 감각적 인상을 받는 백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율적 사고를 강조하는 칸트(Immanuel Kant)는 그것이 범주이고 우리는 이미 마음 속에 있는 격자와 범주를 통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순수한 합리성에 반응하여 해석학의 목표는 저자의 생각과 의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해석은 지평의 융합의 결과라고 제안한 Hans-Gur Gadamer에게. 우리는 텍스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제, 성향, 신념 및 편견을 가지고 와서 텍스트와 대화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전 이해와 전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이해와 해석의 목표가 텍스트와의 실존적인 만남이라는 점을 떠나서는 어떤 이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볼트만은 실존적 해석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천사와 악마, 초자연적인 것과 기적과 부활이 있는 이 세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목표는 본문을 비신화화하고, 이 모든 것을 벗겨내고, 의미의 주요 핵심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재에 대한 부르심이자 텍스트와의 실존적 만남입니다. 그럼 요약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이 개인들의 기여와 해석학에 대한 역사적 뿌리와 역사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 중 일부는 분명히 이미 언급했지만 요약하고 요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다섯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접근법의 유산 중 하나가 귀납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해석학 교과서나 해석 운동 및 성경 연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 방법의 올바른 적용을 강조하여 텍스트의 의미에 도달하고 텍스트의 올바른 의미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게다가 해석과 본문의 의미에 대한 나의 지식과 이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텍스트 자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 논리적 사고, 방법의 올바른 적용,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측면에서 우리 해석학에 영향을 미쳤고 확실히 셀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미친 이들

개인의 유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19세기와 20세기에 성경 본문의 수많은 해석가들과 수많은 해석학 교과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 개인의 두 번째 유산은 해석의 목표가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는 저자의 의도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한 저자와 공감하고, 저자의 입장에 서고, 성경 저자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두어 저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정도까지 소통할 생각이다. 작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작가가 전달하려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저자의 의도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Schleiermacher의 심리학적 접근 방식에서 멀어졌지만 Schleiermacher의 유산 중 하나는 여전히 해석의 목표가 저자의 의도를 회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학에 대한 이들 개인의 뿌리와 영향 중 일부에 대한 이 역사적 조사의 세 번째 영향은 독자를 자율적 자아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칸트에서 시작하여 심지어 데카르트로 돌아가면, 이제 능력을 높이는 자아의 사고 능력과 관점에 의해 결정되는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자율적 사고가 사이에 구분이 있습니다. 독자가 텍스트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독자가 의미를 창조하는 나중 세션에서 이야기할 독자 반응 비평과 같은 현대 독자 지향 접근 방식을 예상했습니다.

독자는 저자가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를 인식하고 결정하고 생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네 번째는 이러한 접근 방식 중 일부가 편견 없이 본문에 접근하는 사람은 없다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금 언급한 처음 두 가지 요점, 특히 중립적인 객관적 관찰자가 되어 텍스트에 대한 통달을 얻을 수 있다는 순전히 귀납적 접근 방식을 강조한 첫 번째 요점과는 대조적입니다. 대조적으로, 이들 중 몇몇은 누구도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관찰자로 본문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편견, 편견, 배경, 성향, 이전 이해, 자신의 신념 및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전 이해 없이 어떻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백지 상태라면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편견과 선입견, 사전 이해와 사전 영향 없이는 누구도 본문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텍스트를 왜곡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올바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누구도 텍스트의 올바른 의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수하물을 텍스트에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접근 방식의 다섯 번째 결과는 해석이 어느 정도 대화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많은 복음주의 해석자들조차도 우리가 본문과 대화를 나누는 해석의 나선이나 해석학적 나선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과 가정을 가지고 본문에 다가가서 본문이 그것에 도전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텍스트에 접근하고 질문하고 도전하도록 허용합니다. 비록 매우 다르게 사용하지만 지평의 융합에 대한 가다머의 개념을 사용하는 일부 복음주의 해석자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석은 텍스트를 숙달하고 그 의미를 추출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때로는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지속적인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기어를 바꾸고 텍스트에 대한 해석 방법이나 해석학적 접근 방식을 다양한 방법의 형태로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라벨에 따른 다양한 비평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차적인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평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 과정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다양한 비평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텍스트 비평이라고 알려진 비평에

대해 소개했지만 장르 비평이나 편집과 같은 다른 비평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입니다. 비평, 형식 비평, 역사적 비평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세션이 끝날 무렵부터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다른 비판을 소개하겠습니다.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멈추고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판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본문이나 신학적 신념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한 타당한 정당성과 건전한 이유를 제공하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비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법 중 상당수는 실제로 다소 부정적인 비판적 판단과 부정적인 가정의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판단, 부정적인 가정 및 경향에서 벗어나더라도 이러한 비판적 방법론 중 상당수는 실제로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텍스트가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생각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의 반대는 경건이 아니지만, 이런 의미에서 비판의 반대는 자신이 믿는 방식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속기 쉬움이나 순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거나 꺼리지 말고, 비판이 좋은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하고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읽는 이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학이나 성경 해석에 대한 역사적, 저자 중심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주로 텍스트 뒤에 있는 접근 방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해석이 텍스트 생산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미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의 이면에 있는 작가와 작가를 둘러싼 상황이다.

두 번째는 텍스트 자체입니다. 즉, 해석은 텍스트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자를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텍스트 앞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석의 주요 초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해석학은 이 세 가지를 거쳐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것, 즉 전체적으로 주로 본문 뒤에 가려고 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저자와 역사적 지향적 접근 방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즉, 저자에 대한 질문, 주로 저자의 의도에 대한 질문, 텍스트를 생산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질문, 역사 저자에 대한 질문, 미안해요, 역사적 독자와 그들의 상황, 그리고 저자가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텍스트를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접근 방식은 텍스트 뒤에 집중됩니다. 그들은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논의하기 시작하고 싶었던 것은 역사적 비평 방법 또는 해석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으로, 다시 저자의 의도를 포함하고 종종 크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약성서나 구약성서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 접근은 해석학의 해석에서 흔히 진행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종종 그것은 성경책의 배경을 조사하고, 저자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상황을 조사하고, 독자가 누구인지, 책의 날짜, 위치,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들의 종류를 조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에 대한 소개 또는 오래된 신약성경의 조사 및 소개에 포함됩니다. 그런 종류의 책은 그런 종류의 질문을 다룹니다.

또, 날짜, 저자 등.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다루고 있는 중이라면, 이해하려고 하거나,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저자가 누구였는지, 그의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 나는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환경을 조성했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일어난 시대와 상황에 대해 질문합니다.

나는 책이 쓰여진 연대, 집필된 시기, 독자들의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한다. 이 모든 것은 애초에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상황이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책을 가져와서 단순히 더 넓은 역사적 맥락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대부분의 주석은 주석의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성경책을 그 설정에 배치합니다. 또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치료, 광범위한 치료가 포함된 구약 및 신약 성서 조사입니다. 그러나 주석서, 신구약서의 서론, 조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적 비평 방법은 산물인 성경을 해석하는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몽주의는 인간의 추론을 강조하고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과 아이디어를 수반하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종종, 때로는 초기에 나는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 비평 방법의 초기 처리에서는 종종 고등 비평이라고 불렸습니다. 더 이상 해당 용어를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작품을 접하고 고등 비평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역사적 비평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유형의 질문, 배경, 역사 및 저자 등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발전된 역사적 비평 방법은 성경 본문에 적용될 때 많은 가정과 신념을 수반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역사적 지향적 접근 방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비평 방법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초기의 좀 더 독단적인 접근 방식, 즉 단순히 신학적 전통과 신념을 강화하고 재확인하는 성경 본문에 대한 좀 더 독단적인 신학적 해석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은 해석자에게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매우 역사적인 과정의 산물로서 조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역사비평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나요?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그랬 습니까 ?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역사적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갈라진 바다를 건너 마른 땅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역사적인가요? 따라서 한 가지 측면에서는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원칙,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구약과 신약성서 본문의 역사적 조사를 인도한 몇 가지 원칙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을 지배하고 인도한 가정과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이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조사한 사상가 중 일부처럼 들릴 것입니다. 역사적 비판적 접근 방식을 안내한 첫 번째 가정 또는 원칙은 인간 이성의 우선 순위와 상식의 우선 순위였습니다.

성경본문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인간의 이성에 따라 진행되고 진행되었다. 즉, 인간의 추론과 상식의 과정은 성경 본문을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예수가 동정녀 잉태와 탄생의 산물인 그의 탄생으로 간주되는 마태복음 1장과 같은 본문에 접근할 때, 인간의 추론과 생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처녀는 임신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논리, 인간의 추론은 중요하고 중요하며 성경 본문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에서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이전 섹션에서 살펴본 일부 사상가들과 매우 유사하고 많은 영향을 받은 두 번째 원칙은 원인과 결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성서에 대한 역사적, 독창적인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의 주요 전체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닫힌 연속체 내에서 발생합니다. 즉, 세계와 역사는 자연의 체계, 즉 인과의 기계적인 체계에 따라 작동한다.

모든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맥락 안에서 보여지며, 다른 모든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즉, 모든 사건에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사건의 진행 과정에 초자연적인 방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 존재나 신이 그러한 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모든 사건에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은 단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홍해는 단지 국가 전체가 건너갈 수 있도록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단지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단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말이나 손길만으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방법에 따르면 그러한 유형의 사물에 대한 다른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지만 종교적 역사적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약성서는 단순히 고대 세계의 다른 종교적 신념과 유사한 종교적 현상의 변형 또는 버전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간의 추론과 사고가 우선이다. 두 번째 기본 전제는 원인과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역사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닫힌 연속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역사 문제에 초자연적인 개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유추의 원리 또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지식이 알려진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히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정합니다. 나는 역사적 사건을 연구할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유사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사건들만이, 아마도 당시 기술 과학 시대의 사건들, 나의 현재 경험과 유사한 사건들만이 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검토할 때, 나의 현재 경험과 유사한 것만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일부 독특한 이벤트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역사의 예를 들자면, 남북전쟁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게티즈버그 전투입니다.

단 한 번의 전투였습니다. 반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역사상 잘 알려진 다른 전투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쟁과 전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800년대 중반에 일어난 펜실베니아 주 게티즈버그 전투가 오늘날에도 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바다가 갈라져서 온 나라가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추의 원리는 역사적 비평적 접근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가정이나 원리이다.

자, 이것의 어려움은 이것이 여전히 독특한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의 대부분은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통역사가 제안했듯이, 눈도 없고 얼음도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은 정확한 비유가 없기 때문에 빙산과 같은 것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비평적 방법은 다른 어떤 사건과도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독특한 사건이 일어날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역사비평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때, 우리는 역사비평 방법을 좀 더 검토한 후, 그것이 성경 해석, 즉 구약성경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